

글은 읽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국어의 핵심이다

제대로 이해하고 거짓 정보와 알 수 없는 정보를 소거하면 된다

핵심은 올바른 독해! 평가원의 논리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독해를 훈련하자

### Step1: 개념/ 맥락/ 관점에 집중한 첫 문단 독해- 기본

개념	집중할 대상	
맥락	개념을 설명& 한정하는 앞 뒤 내용	
관점	복수의 개념이 등장할 때 견주어 구분하는 것 → A B 표시가 핵심 → 결국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비해 반면 달리 지만 보다' '같은 테이블에 있는 두 개념'
구조	문단과 글 전체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 떠올리기 →(6+2) 패턴+ 1	기존의 일반적 추상적 내용- 예시 배경지식- 화제 일반적 생각- 주장 등을 (6+2)패턴으로 재정립
주제	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글의 핵심	

### Step2: 사전 정보의 틀을 짜기(패턴 독해)

왜? 많은 정보 속에서도 집중할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

어떻게? 수능 국어의 6+2패턴을 사용

A-A'(개념어 형용사 구체화)	개념어	개념어란?
	형용사	얼마나 어떻게 형용사한가? 왜 형용사 한가?
P-S(문제- 해결)	문제	(기본 개념) 문제의 내용 해결책
Q-A(통념- 반박)	질문	(기본 개념) 답 근거
통념-반박	통념 (일반적/ 과거)	(기본 개념) 통념의 잘못된 부분 어떻게 반박
시간의 흐름	X시대	(기본 개념) Y시대 Z시대
대칭성	앞선 설명 구조	같은 설명 구조& 내용이 다름

과학 기술- 과정 원리	과학 기술 경제에서 현상.대상	(기본 개념) 대상의 구성요소
		대상이 만드는/ 작동하는 과정과 원리 활용하는 과정과 원리 측정하는 과정과 원리

특히 마지막 2가지는 정보량이 많고 어려운 요즘 국어의 핵심이다

과학 기술 경제 지문에서 쏟아지는 정보에 맞춰

많은 정보를 적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ㄱ

Step3: 예측 참고 '개념 맥락 관점 중심으로 독해'.

예측을 참고해 개념 맥락 관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앞서 배운 6+2 패턴은 글 전체에서 등장하기에 반응할수록 좋다

점차 볼 수 있는 부분을 키워가자

Cf) 문장의 연결관계

어휘력- 문장의 연결관계- 글의 전반적인 구조 파악이 독해 공부의 순서이다

자세한 분류

순접	앞 문장 이어서 서술	그리고 그리하여
대등	앞 문장과 동등 연결	또한 혹은 및
첨가	앞 문장에 새로운 설명 추가	더구나 게다가
예시	앞 문장에 구체적 예시	예컨대 예를 들어
인과	앞 뒤 문장 원인과 결과 관계	따라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요약	앞 문장 내용 요약	결국 요컨대
전환	앞 문장과 새로운 화제	그런데 그렇다면 한편 다음으로
대조	앞 문장과 반대의 내용	하지만 그렇더라도 비해 달리

EX) 1997학년도 수능 언어영역 13번

작가는 현실에 대한 바른 안목으로 그 안에 용해되어 있는 삶의 모습들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현실적 상황이 제시하고 만들어 내는 여러 요소들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이를 진지한 안목에서 분석하여 의미를 부여할 때, 문학은 그 존재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연결사X 스스로 고민 전제& 전제 즉 수평적 관계. 그리고 그리하여 같은 연결사가 어울림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T/ Q&A 카톡: thets

## 간단 명료한 분류- 과거 수능에 등장했던 내용

### 결국 수직과 수평을 통해 전제와 결론의 논리적 구조 확인

수직적 관계	전제- 결론의 관계	A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처럼/ 이런 점에서) B
		B (왜냐하면) A이기 때문
		B (예컨대/ 예를 들어) A
수평적 관계	전제- 전제/ 결론- 결론 관계	X(그리고/ 또한/ 게다가/ 더구나/ 그런데) Y
		동등한 사실들의 연결 (귀납 추리)
		결합 관계 (전제의 결합)
		동치 관계(즉, 다시 말하면)

### EX) 적용하기- 2017학년도 / 독해개념매뉴얼 문제

㉔자연권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원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된 것이다. 반면 ㉕자연법이란 이성에 의해 발견된 계율 또는 일반규칙으로, 그러한 규칙의 하나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을 박탈하거나, 자신의 생명 보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권리는 자유를 주는 반면, 법은 자유를 구속한다. ㉖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며, ㉗이 상태에서 모든 이성적 인간은 적에 맞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㉘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심지어는 상대의 신체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게 된다. ㉙상대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그 신체를 훼손할 권리까지 포함하므로, ㉚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자연적 권리가 유지되는 한 인간은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그런데 자연법은 생명의 가장 안전한 보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고 있으므로, ㉛모든 사람은 평화를 이를 희망이 있는 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성이 우리에게 명하는 또 하나의 계율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㉜평화와 자기 방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모든 사물에 대한 자연적 원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허용된 만큼의 자유에 스스로도 만족해야 한다.

㉔와 ㉕는 '반면'(대조의 연결사 중 하나) 이때는 다른 두 대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평적 관계

(영어로 따지면 in contrast, by contrast, conversely)

자연법과 자연권은 그런데 반면 등을 통해서 차이를 제시하는 수평적 관계!

결국 이 글은 자연권과 이와 대조되는 자연권의 개념을 통해서 자연법의 내용이라는

㉜를 결론으로 내세운다

1문단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포퍼가 어떻게 지식을 구분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구나 뒤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여기서 관점에 주목해야겠다**

**관점제시: A경험 무관 지식 VS B경험 의존 지식**

**A: 수학 논리학 B: 과학적 지식. (공) 포퍼의 지식 분류 결과 (자) 경험에 의존성**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둘 중 B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누적되는구나. 결국 이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없기에 뒤에서는 이 과학적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다

**특히 이때 경험이 등장 가능하(AA-A')**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예상했듯 바로 과학적 방법이 구체화된다고 과학적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후보인 가설이 있어야 하고 이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예측을 도출한 뒤 이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같은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것이구나

**개념: 가설- 과학적 지식의 후보.**

**개념: 과학적 방법- 가설- (논리적)- 예측- 실험& 관찰 같은 경험과 비교- 가설의 참과 거짓을 확인**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도출한 예측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실험이나 관찰과 맞아 떨어지거나 틀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새로운 지식으로 인정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과학적 지식은 누적되는구나

**사전 정보의 틀 뽐기: 6+2 패턴**

글의 전반부는 포퍼가 바라본 지식과 과학적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뒤에서 예측가능한 구조는 우선 개념- 구체화. 대칭성 정도이다

**1. 포퍼의 지식구분**

- 수학 논리학 지식
- 과학적 지식
- 경험과 과학적 방법

(대칭성 가능)

하지만 ㉔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앞서 포퍼의 지식 관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콰인이라는 다른 학자의 지식 관점을 이야기한다

**관점이 등장했기에 차이점과 공통점에 주의해야 하며 대칭성이 등장할 수 있음에 유의하기!**

**관점 제시: 콰인- 가설에서 예측의 논리적 도출 어려움**

**(가) 포- 가설에서 바로 예측 VS 콰- 가설+a에서 예측**

예를 들어 ㉕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㉖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콰인의 주장인 가설에서 바로 예측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의 예시이다. 그런데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일까?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아 바로 설명하는구나. 새로 발견된 금속이 열을 통해 팽창한다는 다른 금속도 열을 가하면 팽창한다는 가설에 기존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앞선 논의가 정리되면서 콰인의 의견이 등장한다. 가설과 기존의 지식, 여러 조건+a까지 모두 합쳐야만 가설에서 예측이 도출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과학적 지식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검증되고 지식으로 추가된다는 것에 대한 반박은 없다 다만 가설에서 어떻게 예측을 도출할 것인가와 예측이 틀렸을 때 어디를 고쳐야 하는가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과학적 지식의 검증에서 예측이 거짓이면 가설이 아니라 조건이나 기존의 지식 혹은 연결 관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무엇 때문에 예측이 실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㉗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앞선 논의를 정리하고 있구나. 콰인의 의견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 지식& 여러 조건& 가설을 포함한 모든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지식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총체주의를 제시하고 있구나

**개념: 총체주의-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앞서 정리한 내용의 포퍼의 지식 분류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 또 경험을 통해서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가 그것!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T/ Q&A 카톡: thets

**관점 제시: 분석 VS 종합 (자)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가**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다시 포퍼와는 구별되는 콰인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험을 통한 검증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과 종합이 아닌 다른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관점과 대칭성이 중요한 것!**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콰인의 설명을 제시하기 전에 여전히 포퍼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포퍼는 동어반복 명제, 혹은 동어 반복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정되는 분석 명제라고 인식하나

개념: 분석 명제-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

**CF) 배경지식**

환원은 기본 요소로 쪼개는 것이다. 만약 모든 사물이 A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든 사물은 A로 환원될 수 있다. 환원이라는 서술은 부분의 합이 전체라는 개념과 잘 어울린다.

백과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환원주의는 복합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상을 단일 레벨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려는 입장을 말한다고 한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는 것은 총각은 총각이다로 환원할 수 있기에 분석 명제인 것이구나. 환원한다는 것은 복잡한 것을(A& + - B)를 더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즉 A와 B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다니 이해가 쉽지 않다 그래도 천천히 글의 흐름을 따라가자

복잡한 미혼의 성인 남성을 총각으로 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둘이 동의적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동의적 표현인 이유는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을 바꾸어도 명제의 참과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즉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을 바꾸어도 여전히 서로 참이다. 이렇게 참 거짓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 둘이 동의적 표현임을 말해주며 이로 인해 복잡하게 쓰인 미혼의 성인 남성을 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것만으로는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반드시 대체 가능하다는 필연성 개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무엇일까?

문장 간의 연결관계를 고민할 때 후자가 분석명제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환원 가능성 이 환원 가능성의 근거로 동의적 표현 동의적 표현의 근거로서 대체하더라도 참 거짓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이것만으로는 동의적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결국 이것은 동의적임을 위한 근거인 대체하더라도 참 거짓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의적이고 이 덕분에 환원이 되고 결국 후자도 분석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즉 언제나 반드시 대체해도 참과 거짓이 바뀌지 않는다는 필연성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T/ Q&A 카톡: thets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언제 어디서나 대체 가능하다는 필연성 개념을 전제로 동의적 표현이 가능해지고 이것 덕분에 후자가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되어 분석명제가 된다. 그런데 이 필연성 개념은 언제 언제나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는 실제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 논리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개념으로 결국 전제가 다시 결론에 근거하는 순환론에 빠지는 것이다

계속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기에 천천히 글을 읽었어야 한다. 환원의 앞서 본 복잡한 대상이나 사상을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한다는 것 즉 바꿔 설명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략적인 글의 이해를 했어야 한다

**분석- 동어 반복/ 동어 반복 환원- 동의- 대체가능& 언제나필연성)- 다시 분석 명제. 전제가 다시 결론에 의존하는 순환론**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드디어 어려웠던 전제들과 설명들이 정리되어 콰인의 지식 분류가 등장하게 된다. 결국 순환론에 빠지는 분석 명제에 대한 정의와 구분을 거부하며 종합 명제 즉 경험을 통해 지식의 참 거짓을 따지는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는 없다고 보는 것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그래서 앞서 본 콰인의 지식 체계가 다시금 정리된다. 명제는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 즉 모두 경험과는 무관한 분석 명제의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관점: 중심부 VS 주변부 (자)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가**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콰인의 지식 분류에 대한 설명이 지속된다**

**관점: 중심부- 상대적 견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기에 VS 주변부- 상대적으로 참과 거짓이 쉽게 변화함**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이 둘의 특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에 다른 종류는 아니구나**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에 말과 동일한 동치 '즉' 같은 말이 등장하고 있구나 중심부 기존의 분석 명제 역시 경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경험과 무관하지는 않구나

**다만 분명히 수학이나 논리적 지식은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험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의미!**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T/ Q&A 카톡: thets**

앞서 포퍼의 과학적 방법과 다른 콰인의 전체 지식과도 이어지는 내용이다.

결국 전체 지식 즉 중심부와 주변부, 가설에 집중하자면 중심부와 주변부 중 어디를 수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내용이 어려기에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포퍼- 분석 경험, 만약 경험 지식과 관련한 가설에서 예측을 도출 이것이 틀리다면 이 가설을 거부

콰인- 전부 전체 지식, 만약 경험과 다르다면 주변부뿐만 아니라 중심부도 수정할 수 있을지도 모를

Cf) 여기서 '전체 지식= 가설+ 기존의 지식+ 조건 등'이라는 앞선 조건을 떠올리는 것도 좋다. 다만 이렇게 어려운 글에서 약간 다르게 서술된 내용을 쓰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독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주의하고 특별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앞에서는 가설과 기존의 지식 그리고 조건 등을 모두 더한 예측&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확인의 대상이라고 했고 만약 경험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가설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주변부 지식과 중심부 지식 중 무엇을 수정할 것인가로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글에 등장한 예시를 그대로 사용해서 글로 이해할 때 새로운 금속a는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 열을 받는다는 조건/ 실제로는 열을 받아도 팽창하지 않았음(결과)/ 이때 가설을 거부해서 이것을 지식으로(아마 주변부 지식) 넣지 않거나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아마 기존의 주변부 지식)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이를 포함해 만약 지식이 경험과 다를 때 꼭 주변부뿐만 아니라 중심부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만약 경험과는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를 수정할 경우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비교적 쉬운 주변부 지식 즉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지식을 수정하는데 실용적 필요에 따라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콰인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중심부와 주변부 지식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설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와 그와 연결되는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방식 등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CF) 선생님의 이해

포퍼: 분석+ 종합 종합에서 가설 제시, 가설에서 예측 제시, 예측과 경험 비교, 새로운 지식의 축적

콰인: 중심& 주변 모두 경험과 연결, 어떤 주변부 지식과 경험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면 기존의 지식, 조건 등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특히 강경과는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음

이렇게 하면 가정과는 크게 다른 경험을 얻어도 가설을 지킬 수도 있음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총체주의의 특징과 강점이 제시되고 있다. 가설의 실용성을 인정하며 주변부 지식이나 심지어는 중심부 지식을 수정함으로써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지식(주변부 지식일 수 있음), 중심부 지식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 만약 전통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설을 추가하거나 다른 행성에 관한 기존의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총체주의의 한계 혹은 당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이 글을 마무리한다. 배중률(X는 P이면서~P일 수 없다. 참이나 거짓 둘 중 하나. 명제와 그 명제의 거짓 중 하나는 참. P나 ~P 둘 중 하나는 참) 같은 기본적 규칙은 경험과는 무관한 분석 명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이다

글이 매우 어렵기에 생각을 계속해서 이해하기. 용어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배경지식과 대칭성 패턴 활용이 중요!

## 주의하자

### <복습>

수능 독해는 글을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이렇게 해서 글에서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해서는 평가원의 패턴에 반응해서 집중할 정보를 기억하고 연결하면서 이해하기

3요소 독해- 사전 정보- 3요소& 패턴 반응

### <문제 풀이>

글과 기본적으로 연결 그리고 알 수 없는 정보 반대의 정보 섞인 정보 제거

보기는 글의 핵심 개념과 연결& 식

ㄱ 에 대한 이해 묻는 판단 근거 앞 뒤& 주관식으로 풀기

비판은 강화 약화 없는 내용!

### <만약 계속 틀린다면>

주관식으로 풀기- 고난이도 훈련

1.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1문단 마지막에 등장. 예측은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기에 이 예측이 틀리지 않았으면 그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 누적 개념 쉼기**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논리 실증 주의자들은 포퍼와 마찬가지로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될 수 있기에 분석 명제로 보는 것. 이들은 귀납적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대체할 수 있다는 필연성과 이에 기반한 동일성을 제시한다**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콰인은 중심부 주변부 지식 모두 관찰과 무관하지 않다고 봄으로써 지식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함**

**정반대**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글에 그대로 등장한다**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동어 반복 명제는 포퍼의 개념이며 포퍼 역시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명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가 동일하고 이 동일성은 언제나 대체할 수 있는 즉 참 거짓이 바뀌지 않는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 ~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는 A가설 B예측 C 전체 지식 총체주의의 입장**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총체주의에서 예측은 가설과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하는 것으로 예측이 틀렸다고 무조건 가설을 거부할 수는 없음**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우선 예측이 틀렸다 즉 경험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고 이것이 가설을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지식을 수정할 것인지 심지어 경험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지식을 수정할 것인지는 가설의 실용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③ ㉠는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예측은 결국 모든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우선 경험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에서 예측이 경험과 틀린 것으로 이때는 경험과 직접 충돌했다고 말하면 된다. 다만 이 때 이렇게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확인할 때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분 심지어는 중심부 지식을 수정할 것인가가 달라지는 것**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글에 제시되었지만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기존 지식을 수정하거나 심지어는 경험과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가설을 수용할 수 있다**